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3, pp. 317-326,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3.317

교인들의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이건호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

Influence of Spiritual Experience on Church Commitment: Moderating Effect of Church Interpersonal Trust

Kunho Lee
Assistant Professor, Smith College of Liberal Arts, Sahmy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매일의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기독교인 400명이었으며, 남성이 193명(48.3%), 여성이 207명(51.7%)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 (Model 1)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독교인의 매일의 영적경험은 교회 헌신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기독교인들의 교회 대인신뢰는 교회 헌신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매일의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교회 대인신뢰는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신뢰로운 인간관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영적경험, 교회헌신, 대인신뢰, 교회갈등, 조직몰입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which the interpersonal trust between christians has on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s and church commitments of christian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00 Christians - 193 men (48.3%) and 207 women (51.7%). The SPSS 25.0 program and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 (Model 1)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d for verifying th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First,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of Christia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urch commitment. Second, the interpersonal trust between christia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urch commitment among Christians. Third, the interpersonal trust between christia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aily spiritual experiences and on church commitment. Hence,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the role and importance of trustworthy relationships in the church as well as personal beliefs were discussed.

Key Words : Spiritual experience, Church commitment, Interpersonal trust, Church conflict Organizational commitment

*Corresponding Author : Kunho Lee(leekunho@syu.ac.kr)
Received January 26, 2022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20,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는 더 이상 새로운 논의주제가 아니다[1]. 사회 각처에 만연한 불신의 풍조로 야기된 갈등과 분쟁의 소재는 이미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경각심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 사회의 분쟁과 갈등에 대하여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2021년 3월 14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열의 아홉은 한국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대인신뢰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유대 결속의 약화 및 집단 간 갈등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3]. 실제로 영국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의 연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167개국 가운데 28번째로 생활하기 좋은 나라이지만, 구성원 간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분에서는 145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어 '신뢰의 위기' 속 한국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4].

이러한 '신뢰의 위기' 가운데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 속 사회의 결속을 촉진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써의 종교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5]. 실제로 Tan과 Vogel (2008)은 종교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종교성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인 신뢰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밝혔으며[6], Glanville과 Paxton(2007)도 종교 참여와 신뢰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7].

2021년 4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종교인 구성비는 2014년 50%에서 2021년 40%로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전체 인구의 과반에 가까운 비율이 종교조직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8]. 이를 통해 국내 인구의 과반 혹은 그 이상이 종교조직과 상호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러한 연관성과 더불어 종교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이념적, 사상적, 도덕적 가치 그리고 사회 자선활동 및 봉사와 같은 실천영역들까지 고려한다면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사회와 종교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근거로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신뢰 위기에 대한 대안과 해결의 실마리를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사회과학 분야의 조직연구에서 소홀히 되어왔던 종교조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새롭게 재인식하게 된다. 더욱이 종교가 사회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하고[9],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인신뢰 수준을 생성하고 향상시키는 기능으로써의 역할들에 대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이와 같은 접근의 타당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10-12].

종교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교회로 정하는 것은 다른 종교조직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기독교인이 전체인구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며[13], 한국사회의 근현대화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만큼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14]. 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사랑은 상대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 신뢰를 근거로 형성된 집단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안팎에서 회자되는 교회조직 내 갈등과 분쟁의 소식은 교회의 사회적 연관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실례로 법원에 제소된 민사소송의 20%가 교인 또는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종교조직 내에서의 구성원 간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게 된다[15]. 또한 높은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제안하고 실천해왔던 교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을 같이하며, 종교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 중심의 실제적 연구들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된다. 물론, 교회는 조직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상 인사, 조직, 행정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 사회조직들과는 다른 신학적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조직의 운영 목표가 손익을 계산하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헌신과 봉사로 운영되는 등 일반 사회조직과는 다른 교회만이 지니는 신학적 차원의 특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6]. 하지만 교회도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여 조직의 효과성 차원에서 일부 일반 사회조직들과 같은 범주 내에서 평가가 가능하고, 다양한 학문의 융합적 연구를 통해 여러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기에 신학과 경영학, 그리고 심리학에서의 주요 변수들을 활용한 융합적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조직 내 신뢰는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요인이다[17]. 이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 헌신을 증진시키는 주요 변수로 구성원 상호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며,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접착제로 기능한다[18]. 또한 구성원 상호 간 의존성을 기반으로 조직 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인이다[19]. 실제로 정구철과 이건호(2020)는 교회 조직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교회 갈등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므로 기업 등과 같은 일반 사회조직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의 대인신뢰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16]. 그러므로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차원과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긍정적 기능들을 고려할 때 교회 대인신뢰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 간 신뢰의 부족으로 촉발될 수 있는 부정적 사건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회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킴을 통해 교회가 지향하는 근본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내 구성원 상호 간 형성되는 대인신뢰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조직몰입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20].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 개입, 충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갖게 되는 태도를 의미하며[21], 조직이 성취하고자 원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신뢰나 애착과 함께 조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의지로 정의될 수 있다. 때로는 용어상 조직 헌신도와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회라는 대상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회 헌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교회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회조직 내에서 평가되는 신뢰와는 사뭇 다른 차원에서의 신뢰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이는 교회조직의 특성상 일반 사회조직과 구분되는 분명한 특징으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신앙적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와도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교회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이다[22]. 교회 대인신뢰는 이러한 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근거로 형성되는 것으로, 원만한 대신관계를 토대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23]. 그러므로 교회 대인신뢰를 연구함에 있어서 대신적 관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조직 내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과 함께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탐색과 관계규명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신 관계차원에서의 관계의 질에 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일상에서의 영적경험을 근거로 추정 가능할 것이다. 영적경험은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초월자인 신과의 연결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반적으로 대신관계에서의 관계의 질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24].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을수록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성이 커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인들의 영적경험은 교회 내 대인신뢰 요인과의 관계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초월자와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측정하는 영적경험 도구(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SES)를 통해[24], 교인들의 영적경험과 교회 헌신도 간의 관계에서의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매일의 영적경험과 교회 헌신도 간의 관계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교회 내 대인신뢰 프로그램 개발과 조직 관리 차원에서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인들의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진술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 간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종파를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기독교인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분포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이 193명(48.3%), 여성이 207명(51.7%)이었으며, 연령의 경우는 30세 이하 75명(18.8%), 31~40세 56명(14%), 41~50세 102명(25.5%), 51~60세 80명(20%), 61세 이상이 87명(21.8%)이었다. 교회 직분의 경우 장로가 78명(19.5%), 권사 5명(1.3%), 집사 194명(48.5%), 평신도 123명(30.8%)이었으며, 신앙연수는 10년 미만이 27명(6.8%), 10~20년 50명(12.5%), 21~30년 96명(24%), 31~40년 87명(21.8%), 40년 이상 140명(35%)이었다. 응답자들 중 369명(92.3%)은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1명(7.8%)은 홀로 신앙을 하고 있었다.

2.2 연구 절차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SYU 2022-01-003). 설문조사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무기명 설문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 응답된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 응답 도중 불편함을 경험하면 언제든 응답을 그만둘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사전에 온라인 연구 설명문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연구 설명문을 읽고 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응답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략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보상으로 휴대폰을 통해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영적경험

영적경험은 Underwood와 Teresi(2002)가 타당화한 매일의 영적경험 척도(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SES)를 김신섭과 정구철(2015)이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5,26]. 영적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초월자인 신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삶에서의 상호작용 또는 연관성을 의미하며, 총 16문항으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나는 나의 종교 혹은 영성 속에서 능력을 발견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기존 선행연구와 함께 비교 가능하도록 원척도의 Likert 6점 척도(6점=하루에도 여러 번, 5점=매일, 4점=거의 매일, 3점=가끔, 2점=어쩌다 한번, 1점=전혀 없음)를 사용하였다. 단 16번 마지막 문항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거리감을 표시하는 문항으로 원척도와 같이 Likert 4점 척도(1점=전혀 가깝지 않다, 2점=다소 가깝다, 3점=매우 가깝다, 4점=매우 긴밀하게 가깝다)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월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 정도가 크고 매일의 영적경험을 더욱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3.2 교회 대인신뢰

교회 대인신뢰는 이건호(2021)가 교회조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타당화한 교회 대인신뢰(Church Interpersonal Trust, CIT)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27]. 본 척도에서의 대인신뢰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상대를 믿고 협력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로 “신뢰 객체가 지니는 특성과 신뢰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정서 및 평가, 그리고 신뢰 객체의 사회적 작용을 규정짓는 제도 준수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의지 또는 확신”을 의미한다[27].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특성기반 신뢰, 과정기반 신뢰, 제도기반 신뢰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으로는 “그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한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 사람은 신앙의 원칙을 잘 준수한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회 대인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3.3 교회 헌신도

교회 헌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ok과 Wall(1980)이 개발한 조직몰입 척도를 교회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구철과 이건호(2020)가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6,28]. 교회 헌신도 척도는 조직 동일시(Organi

zational Identification), 조직 관여(Organizational Involvement), 조직 충성도(Organizational Loyalty)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으로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나는 나 자신이 교회의 일부라고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 7점의 원척도와 동일한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회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본 연구에서의 교회 헌신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2.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 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증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엄격한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조절효과는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 3.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영적경험과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기독교인들의 영적경험과 교인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값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2이하로 나타나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가정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	M	SD	S_k	K
Spiritual Experience	59.51	13.15	.22	-.58
Church Interpersonal Trust	156.78	16.39	-.80	.77
Characteristic-based trust	50.47	6.20	-.63	.41
Interaction-based trust	51.37	6.79	-.55	-.24
Institution-based trust	54.94	5.73	-1.39	1.77
Church Commitment	50.10	7.50	-.39	-.30

S_k=Skewness, K=Kurtosis.

Table 2. Differences in spiritual experience, church interpersonal trust and church commi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00)

Variable	Spiritual Experience		Church Interpersonal Trust		Church Commitment	
	M±SD	F(p)	M±SD	F(p)	M±SD	F(p)
Gender						
Male	59.05±14.06	.45	156.35±16.10	.61	49.92±7.82	.20
Female	59.93±12.27		157.18±16.69		50.26±7.22	
Age group						
under 30[a]	55.41±14.47		158.57±13.82		47.69±7.30	3.26*
31-40[b]	56.14±10.77	4.81***	157.66±14.29	.84	49.11±6.88	a<e
41-50s[c]	60.07±12.44	a,b<e	157.84±18.06		50.89±7.53	
51-60s[d]	61.09±13.17		155.03±16.81		50.64±7.85	
over 61[e]	63.09±13.00		155.05±17.29		51.38±7.32	
Church Duty						
Elder/Senior D.[a]	63.54±12.27	13.21***	158.69±15.65	.73	52.76±6.89	12.88***
Decon[b]	60.73±12.80	a,b>c	156.12±17.07		50.52±7.30	a,b>c
Lay believer[c]	54.85±13.04		156.54±15.81		47.63±7.54	
Period of Faith						
less than 10 years[a]	50.37±12.46	9.14***	159.04±16.41	1.74	46.19±9.12	7.30***
10-20 years[b]	54.86±10.49	a,b,c<e	151.30±19.63		47.34±6.64	a,b,c<e
21-30 years[c]	57.50±12.98	a<c	158.01±15.70		49.02±7.63	
31-40 years[d]	61.48±12.62		156.76±15.47		50.74±6.85	
over 41 years[e]	63.08±13.15		157.48±15.98		52.18±7.12	
Faith						
with Family	60.09±13.14	9.61	157.21±16.11	3.24	50.23±7.51	1.49
Alone	52.55±11.27		151.71±19.00		48.52±7.42	

Note. Alphabet is the result of post-test by Scheffe.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교회 헌신도의 차이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경험과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대에서는 영적경험(F=4.81, p<.001)과 교회 헌신도(F=3.2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집단이 40세 이하의 집단보다 매일의 영적 경험이 높았고, 30세 이하의 집단보다 교회 헌신도가 높았다. 교회 직분을 살펴보면, 평신도 집단보다 장로 및 권사, 집사 집단이 유의하게 영적경험(F=13.21, p<.001)과 교회 헌신도(F=12.88, p<.001)가 높았다. 그리고 신앙 기간이 40년 이상 긴 집단이 30년 이하의 집단들보다 유의하게 영적경험(F=9.14, p<.001)과 교회 헌신도(F=7.30, p<.0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이 함께 신앙을 하는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3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 간의 상관관계

기독교인들의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및 교회 헌신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매일의 영적경험은 교회 헌신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7, p<.001). 교회 대인신뢰는 영적경험(r=.21, p<.001)과 교회 헌신도(r=.30, p<.001)와 유의하지만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spiritual experience, church interpersonal trust and church commitment

(N=400)

Variable	(1)	(2)	(2-1)	(2-2)	(2-3)
(1) Spiritual Experience					
(2) Church Interpersonal Trust	.21***				
(2-1) Characteristic-based trust	.15**	.88***			
(2-2) Interaction-based trust	.23***	.88***	.65***		
(2-3) Institution-based trust	.17***	.87***	.67***	.63***	
(3) Church Commitment	.47***	.30***	.25***	.25***	.28***

**p<.01, ***p<.001.

3.4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Procedure for SPSS Version 3.5를 이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연령대와 신앙기간, 교회직분을 사후검정 결과를 고려하여 가변수(Dummy variables)로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영적경험은 교회 헌신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206, p<.001), 영적경험과 교회 대인신뢰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B=.004, p<.01),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3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305, F=18.98, p<.001).

Table 4.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church interpersonal trust

(N=400)

Variable	B	SE	t	R^2	F
Spiritual Experience (A)	.206	.026	7.81***	.305	18.98***
Church Interpersonal Trust (B)	.099	.020	4.94***		
A × B	.004	.002	2.84***		

Note. Controlled age group, period of faith, and church duty.
***p<.001.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도식으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즉, 교회 대인신뢰도가 높을수록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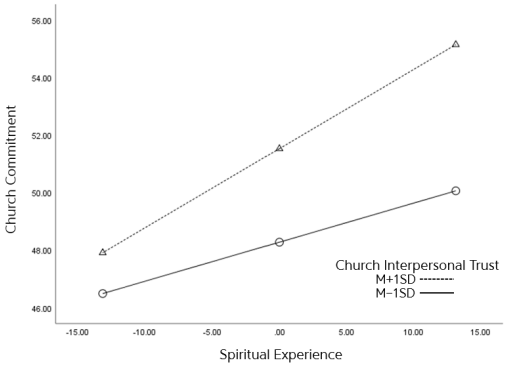

Fig. 1. Moderating effect of church interpersonal trus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교인들의 영적경험이 교회 조직에 대한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회 대인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경험, 교회 대인신뢰, 교회 헌신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와 교회직분, 신앙기간에 따라 영적경험과 교회 헌신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 헌신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사회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맥락적 차원으로[29],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종교조직 내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측면에서의 개인의 특성 요인들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조직관리차원에서 취해오던 거시적 방법론 즉, 조직의 상황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조직의 주체인 구성원들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써의 선회를 의미하며[30],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요인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교회 헌신 즉 조직몰입은 용어 자체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의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행동을 의미하므로[31], 이를 논함에 있어 교회조직이 지니는 고유한 신학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요인들이 신중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특히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한 개인적 편차가 큰 교회조직 내에서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이 교회 헌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조직에 사회과학적 변수들을 투입하는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교회 헌신에 미치는 개인차원의 결정요인들을 일부 탐색하고 이를 통한 교회조직 관리차원에서의 통찰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연령, 직위, 재직기간, 교육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은 사회과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듯[32] 조직몰입의 형성과 견지에 있어서 고려되어져야 할 주요 변수이기에 교회 조직 내에서도 조직의 유효성 및 조직관리 차원에서 구성원에 대한 특성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이 땅에 창조한 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 변수인 영성 즉, 영적경험 또한 이러한 맥락적 차원에서 함께 이해 가능하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교회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인 영적경험은 교회 헌신과 마찬가지로 연령, 직분, 신앙기간과 같은 개인 특성요인들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교회 내 대인신뢰 요인이 개인적 특성 범주 내에서 함께 해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신뢰라는 용어가 누구에게나 익숙한 보편적 용어이지만 학문 영역에서는 저마다의 고유한 관점과 접근방법으로 상이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33]. 신뢰는 대인관계에서의 특성과 신뢰의 내용 및 근거 등에 따라 여러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 차원으로[34] 신뢰 주체가 지니는 개인적 특성이외에 다양한 상황적, 맥락적 차원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교회 대인신뢰 척도는 이러한 접근과 맥을 같이하여 신뢰를 개인의 특성(특성기반) 및 상호작용의 과정(과정기반)과 더불어 두 선행 요인들의 특성을 규정짓는 교회 조직의 환경 및 맥락적 차원의 특성인 제도기반 신뢰의 하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27].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교회 내 대인신뢰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교회 대인신뢰척도가 가정하고 있는 신뢰 개념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의 기본 전제들이 본 연구를 통하여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교회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영적경험이 교회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회조직이 지니는 본질적 특수성을 반영한 주요 요인들이 조직 효과성 차원에서의 사회과학적 변수들과 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관계규명 차원에서의 실제적 성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교회에서 강조하는 대신적(對神的), 대인적(對人的) 신뢰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의 원리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통찰을 제공함에 있어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함의가 크다.

'영적경험'과 '대인신뢰'는 관계라는 공통분모를 소유한다. 영적경험은 초월자인 신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인신뢰는 용어 자체가 내포하듯 신뢰의 주체와 객체 상호 간의 관계적 속성에 근거를 둔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대신, 대인 관계의 총체로 '관계'라는 큰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神)의 속성은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연합하여 함께 공존하는 관계적 속성에 근거를 두며[35], 인간은 이러한 신의 속성에 따라 피조된 존재로 대인관계를 통해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즉, 한 개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은 원만한 대신관계를 근거로 대인관계를 영위해 나아감으로 완성되는 것이 기독교적 입장이다[3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회조직 내에서 강조되는 대신관계 즉, 신앙(信仰)의 중요성만큼이나 교회 내 대인관계 및 신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며, 교회 조직관리 차원에서 영성과 더불어 대인신뢰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또한 교회조직 내에서의 신앙과 대인신뢰 요인은 신학에서 주로 논의되던 이론적 주제였지만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을 통하여 두 요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규명하므로 그동안 논의되던 성서적 원칙의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영성과 교회 대인신뢰의 기능적 관계는 성서적 가르침에 근간을 둔 그리스도인의 관계 및 역할론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 교회 내 구성원 관리 및 상담, 지도, 교육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인신뢰 요인이 조직 및 사회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심리적 구인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다양한 교단의 환경적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을 교파별로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지닌다.

둘째, 종교조직은 일반 사회조직과 구별되는 조직 내 고유한 특성들이 존재하므로 산업 및 조직심리학 또는 경영학에서 연구된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 및 종교조직에 적합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신학, 심리학, 경영학적 관점을 융합하여 교회 내에 영적경험이 교회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과학적으로 검증하였고, 영성과 대인신뢰 요인의 기능과 역할을 일부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교회 내 대인간 신뢰의 부족으로 촉발될 수 있는 여러 부정적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과 교회를 향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C. Park. (1998). Crisis of trust and social capital. *Proceedings of the Sociology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207.

[2] Y. J. Yeon. (2021.3.15.). *9 out of 10 experts "Severe divis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Maeil Labor News.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6

[3]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0).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Seoul: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 Legatum Institute. (2019).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19.* Legatum Institute. https://www.prosperity.com/rankings

[5] M. Maraffi & R. Vignati. (2019). Individual Religiosity and Interpersonal Trust in a Catholic Country: The Case of Italy. *Polis, 33(3),* 343-372.

[6] J. H. W. Tan & C. Vogel. (2008). Religion and Trust: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6),* 832-848.

[7] J. L. Glanville & P. Paxton. (2007). How do We Learn to Trust? A Confirmatory Tetrad Analysis of the Sources of Generalized Trus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3),* 230-242.

[8] Gallup Korea. (2021). *Korean Religion 1984-2021*, Seoul: Gallup Korea.

[9] P. Edgell, J. Gerteis & D. Hartmann. (2006). Atheists As "Other": Moral Boundaries and Cultural Membership in American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2),* 211-234.

[10] L. M. Hempel, T. Matthews & J. Bartkowski. (2012). Trust in a "Fallen World": The Case of Protestant Theological Conservatism.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1(3),* 522-541.

[11] M. R. Welch, D. Sikkink & M. T. Loveland. (2007). The Radius of Trust: Religion, Social Embeddedness and Trust in Strangers. *Social Forces, 86(1),* 23-46.

[12] I. Addai, C. Opoku-Agyeman & H. T. Ghartey. (2013). An Exploratory Study of Religion and Trust in Ghan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3),* 993-1012.

[13] W. Cho. (2018). Mediating Effect of Meaning of

Life on the Influence of Christian Happiness on Church Commitment. *Theology and Ministry, (50),* 187-210.

[14] S. B. Yim. (2011). A Study on the Role of Chrlstianity for the Social Development in Korea. *Korea Christian Studies Institute, 16(4),* 165-194.

[15] H. Moon. (2011.8.25). *"20% of lawsuits in court, related to church or church members."* Newsnjoy.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632

[16] G. Jeong & K. Lee. (2020). Influence of Church Conflict on Church Commitment: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Korea Convergence Society, 11(9),* 305-313.

[17] S. J. Lee & J. S. Han. (2004).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cher-trust scale for adolescenc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3),* 23-39.

[18] R. B. Shaw. (1997). *Trust in The Balance: Building successful organizations on results, integrity, and concern.* CA: Jossey-Bass Publihers.

[19] D. Dreu & K. W. Carsten. (2010). Conflict at work: Basic principles and applied issues.In S. Zedeck (Ed.), *APA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3. Maintaining, expanding, and contracting the organization* (pp. 461-49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 10.1037/12171-013

[20] H. Kim. (1999). Trus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3(2),* 19-35.

[21] J. Kim. (2007).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4),* 421-430.

[22] C. Kim. (2012). "Faith" πίστις) Testified in the New Testament.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theology, 44(4),* 85-110.

[23] K. M. Kang. (2005). Christian Counselling and Human Relationships in Korean Culture.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5,* 179-205.

[24] S. Kim, D. Kim, N. Y. Moon, A. Seo & M. Gill.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s of the Duke University Religion Index (K-DUREL) and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K-D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30(2),* 141-152.

[25] L. G. Underwood & J. A. Teresi. (2002).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evelopment, theoretical description, reliabil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preliminary construct validity using health-related data.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 a publication of the Society of Behavioral Medicine, 24(1),* 22-33.

[26] S. Kim &, G. Jeong. (2015). Influence of Self-Ident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Pastor`s Wives: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Experience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5),* 242-253.

[27] K. Lee. (202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urch Interpersonal Trus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Sahmy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8] J. Cook & T. Wall. (1980). New work attitude measures of trus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rsonal need non-fulfil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3(1),* 39-52.

[29] Y. J. Choi, Y. I. Park & G. H. Jung. (2014). Conceptual Analysi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ing on Nursing Organiz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76-87.

[30] J. Kim & K. Park. (2008).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Resistance to Change & Organization Commit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1(3),* 429-450.

[31] J. P. Meyer & N. J. Allen. (1991).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1),* 61-89.

[32] D. W. Cha & Y. M. Jung.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5(5),* 117-131.

[33] Y. S. Lee. (2004). *Determinants of Company Trust and Leader Trust and Their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34] J. S. Koo. (2005). Trust in Organizations: Conceptualization and Trend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1(1),* 69-83.

[35] M. K. Lee. (2003). An Understanding of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nitarian Doctrine of God.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30(1),* 263-290.

[36] K. M. Kang. (2010). Christian Counselling and Human Relationships in Korean Culture. *Gospel and Counseling. 15,* 79-104.

이 건 호(Kunho Lee) [정회원]

· 2004년 8월 :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문학사)
· 2008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신학 석사)
· 2021년 8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심리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조직심리, 종교심리, 기독교상담
· E-Mail : leekunho@syu.ac.kr